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30.

발 의 자 : 이춘석 · 한병도 · 윤종균
윤준병 · 서영교 · 김윤덕
정준호 · 서미화 · 백선희
박선원 · 임호선 · 이연희
임미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,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「농지법」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·보급, 우선구매 등 영농형

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
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신설).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) ① 「농지법」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(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)을 위하여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

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,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
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32조의2(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) ① 「농지법」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(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)을 위하여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</u> <u>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</u>

	<p><u>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</u></p> <p><u>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,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